

I776 INSTITUTE

# Newsletter

1776연구소 정기소식지 | 발행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9 산림비전센터 1103호 홈페이지 www.1776.or.kr 이메일 1776institute@gmail.com

## 지난달 연구소 동정

### 찰리 커크 레거시 데이

지난 14일(화), 미국 정부가 찰리 커크의 32번째 생일을 기념해 '찰리 커크 추모의 날'로 공식 지정함에 따라, 1776연구소는 그의 삶과 신념을 기리는 '찰리 커크 레거시 데이'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저녁 교제 후 찰리 커크의 주요 영상들을 함께 시청하고 토론하며, 각자의 삶에 영향을 준 그의 메시지와 유산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연구소에서 제작한 찰리 커크 머그컵과 티셔츠 등 기념품을 나누며 자유와 신앙, 가정을 위한 그의 헌신을 기렸다.



### 1776아카데미 기본과정 2기 수료식

지난 24일(금), 1776아카데미 기본과정 2기 수료식이 열렸다. 이번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총 8명의 수료생이 수료증을 받았으며, 다음 3기 기본과정은 내년 1월 개강을 앞두고 있다.



### 한국자유주의학회 '보수주의와 자유' 발표



29일(수), 조평세 박사가 한국자유주의학회 월례포럼에서 '보수주의와 자유'를 주제로 발표했다. 조평세 박사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관계를 조명하며, 한국 사회에서 두 사상의 연합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표 후에는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학회 회원들과 함께 열린 토론이 이어졌다.

### 1916프로젝트 상영회

31일(금), 1776라운지에서 벤 샤피로의 데일리 와이어(DailyWire+)가 제작한 프로라이프 다큐멘터리 <The 1916 Project>를 상영하였다. 이번 상영은 1776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번역 작업을 진행하여 더욱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자 준비한 자리였다. 해당 다큐멘터리는 우생학자 마가릿 생어가 '가족계획'과 '산아제한'이라는 명목으로 낙태 산업을 조직적으로 확산시킨 실체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상영 후에는 생명의 존엄과 현대 사회의 윤리에 대한 토론과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 대표 인사말

10월 한 달도 금방 갔습니다. '언제 좀 시원해지려나' 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갑자기 추워졌네요. 회원님들 모두 영육간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에서는 11월이면 언제나 첫째 주 화요일에 선거가 있고 넷째 주 목요일에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올해는 중간선거도 아닌, 'off-year' election 이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뉴욕 시장과 뉴저지 주지사, 그리고 제가 살던 버지니아 주지사도 새로 선출되기 때문에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자타공인 사회주의자이자 무슬림인 조흐란 맘다니가 시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네요. 버지니아에서는 신실한 보수 크리스천 글렌 영킨 주지사가 연임제한으로 물러나고 급진좌성향의 스펀버거에게 자리를 내주게 생겼습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둘러보며 '감사의 시즌'을 보다 뜻깊게 보내고자 합니다. 27일에는 연구소에서 추수감사절 관련 영화를 시청하고 세미나도 가집니다. 14일부터는 1776아카데미 심화과정으로 현대 보수주의 인물들을 연구하는 '현대 보수주의 열전'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최소 12주 동안 12명 이상의 보수주의자들을 깊이 연구해서 내년에 책을 펴낼 계획입니다.

요즘 고민은 내년 미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입니다. 견미단과 아카데미 외에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1776의 정신을 알릴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주시고 기도도 지혜를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짧은 영상 제작과 책 집필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뒷면에 '자유역사 속 11월'도 눈여겨 봐주세요. 11월에 리스본 지진과 볼레비키 혁명,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 신의주 반공학생 의거 등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항상 의식하며 오늘을 사는 것은 보수주의자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Still standing,  
조평세 올림

##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 역사 기행

11월 8일(토), 양화진 외국인선교사묘원 역사 기행을 진행한다. 이번 기행에서는 조평세 박사의 현장 해설을 통해 140여년 전 복음과 자유의 정신이 이 땅에 심은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이들의 헌신이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 건국의 정신적 기반으로 이어진 과정을 조명할 예정이다.

## 1776아카데미 심화과정 개강

14일(금)부터 1776 아카데미 심화과정인 <현대 보수주의 인물열전>이 진행된다. 해당 과정에서는 12주간 현대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들을 집중 연구한다. 수강생은 각 주제 인물을 발제하고 토론하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단행본 한 챍터를 집필한다. 본 과정은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며, 조평세 박사의 지도로 운영된다.

## 추수감사절 기념 행사

27일(목), 추수감사절 기념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에서는 추수감사절 관련 영화를 함께 시청한 후, "추수감사절의 기원과 전통"을 주제로 한 특강이 제공되며, 미국 건국 과정과 관련해 인디언 학살 등에 대한 역사적 왜곡을 바로잡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후 참석자들은 저녁 식사와 함께 교제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나눌 수 있으며, 특강은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다.

## [광고] 1776 필름&북클럽 멤버 모집

1776 필름&북클럽 11월 모임에서는 첫 주(11.4) 영화 <링컨>을 관람하며, 이후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 책으로 북스터디가 이루어진다. 매주 화요일 7:30, 1776라운지에서 진행된다. 우측 신청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용감한 교회와 겁쟁이 교회" - 랍 맥코이 목사님 <월드뷰> 인터뷰



사실 모두가 충격을 받았고 큰 슬픔을 겪고 있지만, 저와 제 아내는 사실 상심에 빠질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아직 지난번 한국 방문했을 때 썼던 짐을 풀지도 못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고 미국에 돌아가자마자 사역 차 다른 주에 가 있었는데 찰리가 충에 맞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곧바로 비행기를 타고 유타주로 가는 길에 기내에서 그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뒤로 장례 절차와 추모식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제 아내는 계속 에리카(Erika, 찰리의 아내)와 찰리의 어린 두 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한국을 떠나면서 손현보 목사님께 했던 약속을 잊을 순 없었습니다. 만약 손 목사님이 정말로 구속되시면 제가 세계로교회 설교를 맡겠다고 했던 약속 말입니다. 사실 정말 구속되실 거라고 생각도 못 하고 반은 농담으로 했던 말인데, 손 목사님 사건은 찰리에게도 한국 방문 후 큰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찰리를 생각하며 다시 찾아왔습니다. ...

## "이승만의 <한국교회핍박>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 - 조평세



우리 국부 이승만 대통령은 1913년 하와이에서 발간한 <한국교회핍박(청미디어, 2008년 재출간)>을 통해 당시 일본제국의 한국교회핍박 실황을 정리하며,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제시한 바 있다. 이 책은 단순히 일제의 한국교회핍박을 해외에 고발하고자 쓴 책이 아니다. 이 책은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라는, 이미 한성감옥에서 깨달은 깊은 통찰을 보다 상세히 풀어쓴 것이다. ...

# November, in the History of Liberty

- 11월 1일 (1755)** 리스본 대지진(강도 8.5-9.0)이 일어남. 많은 주민들이 성당에 모여 있던 만성절(All Saints Day)이었기 때문에 피해가 더욱 극심, 약 6만 명에서 10만 명 사망 추정. 이 지진으로 인해 당시 계몽주의 시대 철학자들 사이에서 악의 문제와 신의 섭리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촉발됨. 특히 볼테르(Voltaire)의 시 '리스본'이 큰 반향을 일으키며 이신론(deism, 창조주가 창조 이후 더 이상 세상을 감찰하지 않으신다는 신관)이 유행하게 되어 프랑스혁명의 사상적 기초가 됨.
- 11월 3일 (1839)** 영국 군함이 중국의 군선 여러 척을 폭파하면서 제1차 아편전쟁이 시작. 아편전쟁(1839~1842)은 영국과 청나라 간에 아편 무역 문제로 발생한 전쟁으로, 청나라의 패배와 함께 남경조약이 체결되어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가 되고, 유럽 열강들이 중국 대륙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는 동아시아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임. 이 사건으로 중화사상의 위신이 추락하고, 서세동점 시대가 본격 개막. 중국 내부 경제적, 사회적 혼란을 가속화시키고, 태평천국 운동 등의 내란을 촉발시키며 아시아 각국에서 서구 열강의 강력한 군사적·경제적 영향력이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
- 11월 7일 (1917)**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 군사혁명위원회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1000명의 적위대를 이끌고 임시정부를 급습해 무너뜨림. 율리우스 구력으로 10월 25일이기 때문에 '10월 혁명'이라 불리기도 함. 이 혁명으로 볼셰비키가 권력을 장악,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인 소비에트 러시아 정부 수립을 선언함.
- 11월 11일 (1918)** 1918년 11월 11일 오전 5시 45분, 프랑스 콩피예뉴에서 독일과 연합국 간에 서부전선에서의 전투 중단을 위한 정전협정(Armistice)을 체결. 같은 날 오전 11시 정각부터

- 1차 세계대전이 공식 종료됨. 영연방 국가들은 이 날을 Armistice Day 또는 Poppy Day로, 미국은 1954년부터 Veterans Day(재향군인의 날)로 변경하여 1차 세계대전 및 모든 전쟁의 자국 참전용사들을 기림.
- 11월 19일 (1863)**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게티즈버그 남북전쟁 전적지를 국립묘지로 헌정하는 행사에서 게티즈버그 연설(Gettysburg Address)을 함. 이 연설은 오늘날 영미권에서 가장 많이 읊어지는 위대한 연설로, 시편 90편 '인간의 연한'을 연상케 하는 "Fourscore and seven years ago"로 시작해 "이 나라가, 하나님 아래, 자유의 새로운 탄생을 맞으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지구상에서 끊이지 않도록 헌신합니다."로 끝남. 이 연설로 남북전쟁은 전환점을 맞아 1865년 북부의 승리로 남부 흑인노예들을 해방시킴.
- 11월 23일 (1945)**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소련군과 공산당의 학정에 맞선 기독교 학생들이 시위를 일으킴. 세계 최초의 반공학생시위로 기록되며 1956년에 '반공학생의 날'로 지정됨. 당시 신의주에서는 전도사로 부임한 윤하영, 한경직 목사 등의 주도로 기독교사회민주당을 결성하는 등 기독교 가치관에 따른 반공 정서가 자리 잡음. '반공학생의 날'은 현재 법적으로 폐지됨.
- 11월 26일 (1789)**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첫 공식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을 선포하며, 미국 공화국의 건국을 감사하는 기도의 날로 지정. 이후 에이브러햄 링컨이 남북전쟁 도중 추수감사절을 11월 네 번째 목요일로 기념할 것을 선언하며 현행 추수감사절 날짜로 굳어지게 됨.

## 10월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은	김○은	김○희	박○린	서○민	이○민	이○한	정○아	허○은
권○운	김○일	노○더	박○주	성○준	이○빈	이○현	정○용	이○란
권○현	김○주	도○현	박○혁	손○광	이○영	장○	정○욱	
김○실	김○준	민○빈	배○호	송○음	이○운	장○재	조○호	
김○애	김○진	민○환	변○연	양○진	이○은	정○교	차○욱	
김○연	김○진	박○기	서○경	양○호	이○중	정○슬	추○령	

**1776연구소 후원 안내**

3만원 이상 정기 후원 시  
1776연구소 굿즈를 보내드립니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004-781904  
(1776연구소)